

# 반실증주의 사회학방법론에 대한 일고찰

金 珍 英\*

## 목 차

- |                         |            |
|-------------------------|------------|
| I. 머리말                  | 2. 현상학적 접근 |
| II. 사회학방법론에 있어서의 몇가지 가정 | 3. 민족방법론   |
| III. 반실증주의 사회학방법론의 성격   | IV. 맺음말    |
| 1.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분석        |            |

## I. 머 리 말

본고는 실증주의 사회학방법론에 대한 대안으로서 출현한 소위 반실증주의(anti-positivism) 사회학방법론의 성격을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주지하고 있듯이 반실증주의 사회학방법론은 1960년대 이후부터 학문적 공동체내에서 각기의 고유한 영역을 구축하고, 1970년대 이후에는 패러다임적 위치를 공고히 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반실증주의 사회학방법론의 존재론적·인식론적 성격, 즉 사회적 실재(social reality)의 문제를 어떠한 인식론적 시각에서 규명하고 있는가를 검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논의의 과정을 거친다.

첫째, 사회학은 사회과학내의 다른 어느 영역보다도 격렬한 방법론적 논쟁을 진행시켜 왔다고 할 수 있는데, 반실증주의 사회학방법론의 성격을 살피기 위해서는 실증주의 사회학방법론과 대비시켜 이들의 근거에 기초하는 철학적 가정들을 조망하여 보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두 방법론은 사회과학의 철학적 쟁점들에서 근원적으로 상이한 갈래를 형성하기 때문에 이들의 근본적 가정들을 검토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두 방법론이 전제하고 있는 근본가정을 살핌으로써 반실증주의 사회학방법론의 패러다임적 성격을 제시할 것이다.

\* 社會科學大學 專任講師

둘째, 반실증주의 사회학방법론의 특성을 포착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문제점의 하나는 철학적 쟁점과 기술적 쟁점이 지향하는 경향적 성격이 동시에 논의를으로써 혼란이 야기되기 때문일 것이다. 이 때 철학적 쟁점이 주로 존재론과 인식론의 문제와 관련된다면 기술적 쟁점은 연구의 방법, 기법 및 절차 등과 관계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sup>1)</sup> 본 고에서는 후자보다는 전자에 더 중점을 두어 논의될 것이다.

셋째, 반실증주의 사회학방법론의 성격을 살필 것이다. 반실증주의 사회학방법론의 범주에 포함되는 제방법론들은 사회적 실재를 파악하는 관점에서 보면 다양하게 열거될 수 있을 것이나 실증주의 사회학방법론에 대한 거센 비판과 극단적인 경우에는 대체를 주장하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분석(Symbolic Interactional Analysis), 현상학적 접근(Phenomenological Approach) 그리고 민속방법론(Ethnomethodology)이 여기서 검토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언급한 제논의에 입각하여 실증주의 방법론에 대한 반실증주의 사회학방법론의 대체 가능성을 전망해보고 결론을 맺을 것이다.

## II. 사회학방법론에 있어서의 몇가지 가정

T. Kuhn은 어떤 이론이나 방법론의 내용과 성격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위한 개념으로 패러다임(paradigm)이란 용어를 제시한 바 있다. 그에 의하면 패러다임이란 특정의 학문공동체가 공유하는 연구활동의 여러 차원들, 즉 범례(exemplars), 상징적 일반화, 형이상학적 요소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sup>2)</sup> 이러한 개념을 사회학이론이나 방법론에 적용시킬 수 있을런지는 현시점에서 볼 때 다소 의심스럽다. 왜냐하면 자연과학내에서는 과학과 방법의 문제에 있어서 논쟁이 거의 종결되어진 듯하나 사회학내에서는 아직도 그 같은 문제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사회학내에서 보여지고 있는 학문적 활동의 양태들이 치열한 경쟁상태에 있고, 따라서 Kuhn의 설명방식에 따르면 정상과학(normal science) 이전의 단계인 경쟁적 패러다임의 단계이거나 전(前) 패러다임(pre-paradigme)의 단계에 있는 것 같이 보여진다.

그러나 패러다임의 개념적 의의의 수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공유된 패러다임은 하나의 과학적 공동체를 다른 과학공동체와 구획짓는 주요 개념이 될 수 있다. 이 점에서 Kuhn의 패러다임 개념의 유용성을 수용하여 사회학의 영역에 적용하려는 다음과 같은 Ritzer의 논술이 주목된다.

패러다임은 과학내에서 주제에 대한 근본적인 이미지이다. 그것은 무엇이 연구되어야 하는가, 어떤 질문이 제기되어야 하는가, 그 질문이 어떻게 제기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얻어진 해답을 해석하는데 있

1) Alan Bryman, "The Debate about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search: a Question of Method or Epistemology",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35, 1984.

2) Thomas S. Kuhn,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0). pp.181~187. Kuhn에 따르면 지식의 축적이 과학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과학에서의 진정한 변화는 과학혁명의 결과로서 일어난다. 그의 과학적 변동의 모델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패러다임 I → 정상과학 → 변칙성 → 위기 → 과학혁명 → 패러다임 II.

어서 어떤 규칙이 따라야 하는가를 규정해준다. 패러다임은 하나의 과학내에서 광범위한 합의단위이며 과학적 공동체(혹은 하위공동체)를 서로 구별짓는데 이바지한다. 그것은 그 내부에 존재하는 범례, 이론, 방법 및 도구들을 포함하고 규정하며 상호관련시켜 준다.<sup>3)</sup>

사회학방법론에 있어서 엄밀한 의미의 패러다임의 존재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방법론내에 전제되는 철학적 가정과 문제해결사례, 방법 등의 측면과 연관지워 볼 때 패러다임과 같은(paradigm like) 유사한 존재가 있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 같다.

모든 사회학이론이나 방법론은 과학에 대한 이론과 사회에 대한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런 만큼 사회학방법론의 성격을 패러다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회학의 상이한 접근을 규정하고 있는 철학적 가정들을 4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개념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sup>4)</sup>

모든 사회과학자들은 궁극적으로 사회세계의 성격규명과 이해를 추구한다. 이 경우에 사회세계의 성격과 그 탐구방법에 대한 몇가지 가정들을 전제로 하여 탐구를 진행시킨다. 이러한 가정들 중 그 첫째의 것이 존재론적(ontological) 성격에 관한 것이다. 존재론은 탐구중인 현상의 진정한 본질이 무엇인가하는 질문을 제기한다. 이는 탐구의 대상이 되는 사회적 실재의 본질과 그 존재에 대한 물음을 중심으로 명목론(nominalism)과 실재론(realism)의 입장으로 대별된다. 전자는 탐구되는 사회적 실재가 개인의식의 산물에 불과한 것이고 어떠한 객관적 존재기반도 갖지 않는 가공적인 존재로 본다. 사회세계는 그 실재를 구조짓는 데 사용되는 명칭이나 개념이상의 어떠한 것도 되지 못한다. 개념들은 외부세계를 서술하고 의미있게 하는 도구로서의 유용성을 갖는 관념적 구성물에 불과한 것일뿐 사회세계의 실재의 성격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사회적 실재는 설명되어지기를 기다리는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의미적으로 구성되는 정신적 구조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에 실재론의 입장에서는 사회세계의 실재가 객관적인 성격을 갖으며 저기 어딘가에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개인의 감각활동과 인지외부에 존재하는 사회세계는 견고하고 상대적으로 불변적인 구조로 구성되기 때문에 감지가 가능한 존재라는 것이다. 존재론적으로 볼 때 사회세계는 자연현상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물체와 같이 개별 인간의 존재나 의식에 앞서 존재하는 것이다.

두번째 가정은 인식론적(epistemological) 성격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사회세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여기서 얻어진 지식을 근거로 하여 타인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즉 지식의 근원에 관한 가정을 말한다. 그리고 이는 어떤 형태의 지식이 얻어질 수 있으며 진실로서 간주되

3) George Ritzer, *Sociology: A Multiple Paradigm Science* (Boston: Allyn and Bacon, Inc., 1980). p.7.

4) 이하의 철학적 가정에 대한 논의는 다음의 문헌을 참조하였음. Gibson Burrell and Gareth Morgan, *Sociological Paradigms and Organizational analysis* (London: Heinemann Educational Books Ltd, 1980). pp.1~20; G. Ritzer, *op. cit*; Howard Schwartz and Jerry Jacobs, *Qualitative Sociology* (New York: The Free press, 1979). pp.3~36; David Walsh, "Sociology and the Social World", in Paul Filmer *et al.*, *New Directions in Sociological Theory* (London: Collier-Macmillan Publishers, 1979). pp.15~36. 특히 이중에서도 G. Burrell and G. Morgan의 논의를 주로 참고하였다.

는 지식과 허위로 간주되는 지식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하는 지식의 진위판단 문제를 수반한다. 예전대 지식자체의 성격에 한정해서 볼 때 그것을 구체적이고 감지가 가능한 상태로 확인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다는 입장과 지식은 개인의 경험과 통찰에 근거하기 때문에 유동적이고 주관적인 형태로만 확인할 수 있다는 입장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인식론적 입장은 실증주의(positivism)와 반실증주의(anti-positivism)로 구분된다.

실증주의의 입장은 사회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을 그 구성요소들간의 규칙성과 인과관계를 밝혀냄으로써 설명하고 예측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실증주의 인식론은 그 구체적인 접근방법에 있어서는 다를 수 있지만, 지식의 성장은 새로운 결과가 기존의 지식체계에 첨가됨으로써 그릇된 가설이 제거될 수 있는 누적적인 과정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반실증주의의 입장은 실증주의 인식론과는 달리 사회세계가 연구의 대상이 되는 활동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행위자들의 관점(actor's point of view)을 통해서만 이해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사회세계에 관철되는 법칙이나 규칙성을 탐색하는 활동의 유용성을 거부한다. 그러므로 반실증주의자들은 실증주의 인식론을 특징짓는 관찰자의 관점을 인간활동을 이해하기 위한 준거로 보지 않는다. 그들은 외부로부터의 설명보다는 내부로부터의 이해를 강조하는 주관적인 전략을 채택하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그들은 사회과학이 여하한 종류의 객관적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입장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sup>5)</sup>

세번째의 가정은 인간의 본성(human nature), 특히 인간과 환경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인간의 삶은 탐구의 주제이자 대상이기 때문에 모든 사회과학자는 이 가정에 토대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가정에 관련된 입장의 하나로 우리는 인간을 상황에 대해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존재로 파악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인간과 그의 경험은 환경의 산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인간은 오직 외부환경에 의해 조건지워지는 꼭두각시와 같은 존재에 불과하고 재구성능력을 결여한 존재이다.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입장은 환경에 의해 단순히 통제되고 만들어지는 존재로 인간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창조하고 재구성하는 무대의 주체로 보는 입장이다. 이렇듯 인간과 환경간의 관계에 대한 상반되는 입장은 철학적 논쟁을 낳게 되어 전자는 결정론(determinism)으로, 후자는 자원론(voluntarism)으로 나타나게 된다. 우리가 방법론을 중시하는 것은 그것이 인간활동을 이해하기 위한 이론과 밀접히 관련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때 방법론은 이 관점중의 어느 하나를 명시적·묵시적으로 채택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앞서의 철학적 가정, 즉 존재론, 인식론 및 인간의 본성에 대한 가정들은 방법론적(methodological) 성격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각각의 가정들은 사회적 세계에 대한 지식을 탐구하고 획득하는 방법에 중요한 결과를 주기 때문이다. 이 방법론에 대한 가정도 앞의 것들과 마찬가지로 두개의 접근법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개별기술적(ideographic) 접근은 탐구중인 주제에 대한 일차적인 지식을 획득함으로써만 사회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주제에 가까이 접

5) 뒤에서 다루게 되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분석이나 현상학적 접근이 이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 방법론들은 사회세계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있어 이해적 방법을 강조하기는 하지만 객관적 지식을 추구하려는 시도를 버리지는 않는다.

근해 들어가서 그것의 상세한 특성, 배경과 생활내용 등을 탐색하는데 초점을 둔다. 따라서 이 접근방법에서는 일상생활내면에 깊숙히 들어가서 행위자들의 주관적 의미의 세계에 대한 분석이 강조되므로 일기, 전기 및 일상의 언어적 흔적들이 중요한 분석자료가 된다. 반면에 법칙정립적(nomothetic) 접근은 자연현상과 사회현상을 본질적으로 거의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자연과학에서 사용되는 접근방법을 사용하며 여러가지 구체적 사상(事象)들의 범주에 관한 일반적 설명을 추구하기 위해 형식적 절차와 기법을 강조한다. 이 때 조사는 과학적 객관성과 엄밀성의 기준에 근거한 가설검증과정에 초점을 둔다. 과학은 원인과 결과를 밝혀내는 인과론적 법칙을 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된 철학적 가정들을 분석적으로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여기서 방법론에 대한 가정은 여러 철학적 가정들중의 하나이기는 하지만 방법론은 단순히 절차나 방법만을 다루기 보다는 나머지 세 가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들을 포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사회학방법론의 패러다임과 관련된 철학적 가정

<u>방 법 론 적 패 러 다 임</u>	<u>주 관 적 접근</u>	<u>객 관 적 접근</u>	<u>방 법 론 적 패 러 다 임</u>
반실증주의 사회학방법론	명 목 론 — 존재론 — 실재론 반실증주의 — 인식론 — 실증주의 자 원 론 — 인간의 본성 — 결정론 개별기술적 — 방 법 론 — 법칙정립적	실재론 — 실증주의 결정론 — 법칙정립적	실증주의 사회학방법론

출처 : Gibson Burrell and Gareth Morgan. *op cit.*, p.3을 참조하여 재작성.

방법론에 대한 가정을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방법론적 입장은 존재론, 인식론 및 인간의 본성에 대한 가정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즉 법칙정립적 접근방법을 자신의 방법론으로 취하는 연구자는 존재론적으로는 실재론을, 인식론에서는 실증주의를, 그리고 인간의 본성에서는 결정론적인 입장을 지니게 된다. 따라서 사회세계는 견고하고 구체적이며 객관적인 실재인양 처리되고 과학적 탐구는 사회적 세계를 구성하는 여러 요인들간의 관계와 규칙성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둬으로써 사회적 실재에 관철되는 보편적 법칙을 찾아내는 것을 제1의 목적으로 한다.

반면 방법론적으로 개별기술적 입장을 취하는 연구자는 존재론적 가정에서는 명목론적 입장을, 인식론에서는 반실증주의를, 그리고 인간의 본성에서는 자원론적 입장을 유지하게 된다. 사회적 세계는 개인의 의식이나 인지활동의 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확고부동한 실재란 존재할 수 없고(따라서 사회세계는 상대적 성격을 갖는다) 그것을 창조·유지·수정·해석하는 개인의 주관적 경험에 대한 이해가 주요 관심사항이 된다. 이 입장이 추구하는 것은 일반적·보편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개인에게 독특한 것을 이해·해명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사회에 대한 이러한 철학적 가정들은 우리가 사회학방법론의 패러다임을 실증주의 사회학방법

론(양적 방법론)과 반실증주의의 사회학방법론(질적 방법론)으로 구별하기 위해 분석적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가정에 근거한 방법론의 위치설정은 우리의 논의에 매우 유용한 준거틀을 제시하여 준다. 왜냐하면 실증주의 사회학방법론은 객관적 접근(실재론, 결정론, 법치정립적)인 반면에 반실증주의 사회학방법론이라 할 수 있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분석, 현상학적 접근 및 민속방법론은 주관적 접근(명목론, 자원론, 개별기술적)을 취하기 때문이다.

### Ⅲ. 반실증주의 사회학방법론의 성격

#### 1.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분석

1960년대에 이르러 각광을 받기 시작한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분석방법은 갑자기 출현하여 사회학방법론의 한 지평을 열었다기 보다는 Weber의 행위론에서부터 G. H. Mead에 이르기까지 초기 미국 사회학자들로 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sup>6)</sup> 이 중에서도 Mead의 이론적 공헌은 매우 큰 것이었으며 그의 영향을 받은 Hebert Blumer가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집성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Blumer를 중심으로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방법론적 성격을 살펴볼 것이다.

Blumer의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세가지 기본적인 전제를 가지고 있다. 첫째는 인간은 대상이 그에 대하여 지니고 있는 의미를 바탕으로 하여 행동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대상이 행위자에 대하여 지니는 의미가 중요한데, 그것은 인간행위가 이 대상을 중심으로 하여 일어나기 때문이다. 둘째, 이러한 대상의 의미는 대상자체에 본질적으로 내재해 있는 것이 아니라 대상들 사이의 상호작용의 과정을 통해 생겨난다. 셋째, 그렇게 발생한 의미는 상호작용과정 중인 행위자의 해석 과정에 의해 처리 수정된다. 이 해석과정은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지향하는 대상을 자기 자신에게 지시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 상호작용하는 과정 때문에 의미를 다루게 된다.<sup>7)</sup>

이러한 Blumer의 입장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존재론, 인식론 및 인간의 본성의 측면과 관련하여 일련의 근본적인 이미지(root images)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sup>8)</sup>

첫째, 인간사회 또는 인간집단생활(human society or human group life)은 행위하는 개인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는 이러한 행위속에서 존재하고 이 행위를 통해서만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관계적 사회학이 중시하는 사회구조적 개념들은 행위하는 구체적인 개인들에 대한 이해에서 부터 출발하여 파악되어야지 행위자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6)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출현과정에 대해서는 Jonathan H. Turner, *The Structure of Sociological Theory* (Illinois: The Dorsey Press, 1978), pp. 309~325를, 그리고 이론적·방법론적 계보에 대해서는 Peter Adler and Patricia A. Adler, "Symbolic Interactionism" in Jack D. Douglas, et al., *Introduction to the Sociologies of Everyday Life* (Boston: Allyn and Bacon, Inc., 1980), pp. 20~61을 참조할 것.

7) Hebert Blumer, *Symbolic Interactionism: Perspective and Method* (박영신 역, 「사회과학의 상징적 교섭론」, 서울: 까치, 1982), pp. 27~55.

8) *Ibid.*, pp. 34~56; Peter Adler and Patricia A. Adler, *op.cit.*, pp. 39~41.

둘째, 사회적 상호작용(social interaction)은 행위주체들간의 상호작용으로서(사회구조적 요소나 심리학적 요소들간의 상호작용이 아니다), 인간행위를 표현하게 하거나 형성하는 과정이다. 상호작용을 하는 개인 당사자는 반드시 상대방의 역할을 담당하여 상대방에게 무엇을 해야 한다고 행위주체자가 규정하면서 동시에 타인의 규정과 판단을 해석하는 규정과정(process of definition)이 상호작용 과정인 것이다.

세째, 세계는 대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대상들(물리적, 사회적, 추상적 대상)은 상징적 상호작용의 산물이다. 환경의 본질은 그 환경을 이루고 있는 대상들이 그 사람들에게 지니고 있는 의미에 의해 규정되기 때문에 동일 공간을 점유하고 그 속에서 살고 있는 개인이나 집단들일지라도 매우 상이한 세계를 가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대상은 사람들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정의와 해석의 과정에서 형성되고 발생되기 때문에 변화하는 성격을 갖는다.<sup>9)</sup>

네째, 행위자로서의 인간은 자기자신과의 상호작용을 지속적으로 해석하는 지각적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을 행동의 대상(self-object)으로 삼을 수 있는 성찰성을 지니고 있다. 이 성찰성의 속성은 인간의 독특한 성격이며 이 세계를 이해하는데 근본적인 역할을 한다.

다섯째, 인간행위는 환경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자기지시, 해석 및 정의의 과정을 통해 구성·유지·변형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집단생활은 규정과정을 통해 자기행위를 타인에게 맞추어 조정해 나가는 과정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행동의 사회조직인 연합행동(joint action)을 발생시키며 구성한다. 인간사회에서 사회적 행동의 거의 대부분은 연합행동이 반복되는 유형의 형태로 존재하지만 그것은 고착된 것이 아니라 항상 유동적 과정의 상황속에 있는 것이다. 연합행동은 부분행동의 단순한 합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분해해서 들여다 보면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점에서 제도, 규범, 가치 등의 구조적 개념을 사용하여 사회세계와 인간행위를 설명하려는 관계적 사회학방법론의 입장은 Blumer에 의해서 강하게 비판되어진다.

그러면 Blumer가 취하는 방법론적 원리는 무엇인가? 우선 Blumer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철학적 이론이 아니라 인간의 사회생활과 행위에 대한 검증할 수 있는 지식을 낳기 위한 하나의 접근방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방법론적 원리들은 경험과학의 필수조건의 요구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이론적 지향과 경험세계의 완고한 성격의 통합적인 형태를 지닐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sup>10)</sup> 따라서 그는 경험세계가 요지부동한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고착되고 불변적인 것이기 때문에 경험세계의 실재는 고도로 발달된 자연과학의 연구방법에 의해서 파악되

9) 한 예로 병원은 정형화된 고유한 실재를 갖는 조직이 아니라 교섭된 질서(negotiated order)를 나타내는 대상에 불과하다. A. Strauss *et al.*, "The Hospital and Its Negotiated Order", in E. Friedson, (ed.), *The Hospital in Modern Society* (New York: Macmillan, 1963), pp.147~169.

10) Hebert Blumer. *op. cit.*, p.56.

Blumer는 경험세계의 실재가 완고한 성격을 갖는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것이 고정된 채로 지속된다는 전통적인 실재론의 입장을 거부한다.

어야 한다는 실증주의 방법론의 입장을 비판한다.<sup>11)</sup>

방법론은 그 탐구과정의 몇몇 측면이나 부분만을 포함한다기 보다는 과학적 탐구활동의 전 과정을 포함한다. 그런 만큼 연구방법은 경험세계에 의존할 뿐만 아니라 또한 경험세계에 의해 검증받아야 한다. 이 때 검증은 과학적 탐구의 방법이나 모형에 의해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연구 대상인 경험세계가 궁극적이고 결정적인 대답을 제공해 준다고 본다. Blumer는 이러한 방법론을 실천할 수 있는, 즉 살아 생동하는 경험세계에 직접 뛰어들어가 연구하는 자연주의적 연구방법인 탐색(exploration)과 정밀검사(inspection)을 제시하고 있다.<sup>12)</sup>

탐색은 조사자로 하여금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사회세계의 영역에 근접해 들어가 문제의식, 연구방법, 자료분석 및 해석 등을 직접 유도해내는 방법이다. 이는 연구자가 탐구활동을 진행함에 따라 경험세계와 직접 접하기 이전에 지녔던 스테레오타입적인 생각과 연구방법을 수정하게 하는 융통성 있는 연구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탐색적 연구방법은 확정된 순서에 따라 조사를 진행시키는 실증주의적 연구방법과 대조적이다. 한편 경험적 사회세계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는 현상에 대하여 종합적인 설명을 하고 분석을 통해 일반적 관계를 밝혀내어야 할 것이다. 즉 직접적인 조사를 하는 연구자는 문제를 이론적인 형태로 전환시키는 물론 경험세계의 요소들간의 규칙성을 규명하여 이론적인 명제를 구성하는 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정밀조사가 필요하다. 정밀조사는 분석과 이론적인 명제의 수립을 위해 경험적 내용에 대한 철저하고도 집중적인 조사인 것이다. 그러므로 정밀조사는 특정의 분석요소를 여러 각도에서 바라보고 경험세계의 사상(事象)들을 철저히 검사하여 그 분석요소의 본질을 규명하고자 한다.

Blumer의 이러한 방법론적 전략은 많은 비판을 받기도 하였지만<sup>13)</sup> 실증주의 방법론의 존재론, 인식론 및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해의 오류를 지적하고 이후의 반실증주의 사회학방법론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2. 현상학적 접근

철학으로서의 현상학은 Husserl에 의해서 체계화 되었지만 이를 사회학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Alfred Schutz이다. 그는 Husserl의 현상학을 사회세계의 문제에 적용하고 현상학적 개념을 M. Weber의 사회학방법론과 관련시켰다는 점에서 반실증주의 사회학방법론에 커다란 공헌을

11) Blumer는 실증주의 방법론이 경험세계를 왜곡시켜 연구해 왔다고 비판하고 그 문제점을 ①과학적 형식절차, ②반복조사연구, ③가설검증, ④조작적 절차 등으로 지적하고 각각의 대안에 대해 논하고 있다. *Ibid.*, pp.58~73을 참조할 것.

12) *Ibid.*, pp.83~93; Hebert Blumer, "Methodological Principles of Empirical Science", in N. K. Denzin, (ed.), *Sociological Methods* (Chicago: Aldine Publishing Co., 1970), pp.21~39.

13) Blumer의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이론적·방법론적 전략의 비판에 대해서는 Peter Adler and Patricia A. Adler, *op. cit.*, pp.49~52; I. M. Zeitlin, *Rethinking Sociology: A Critique of Contemporary Theory* (New Jersey: Prentice-Hall Inc., 1973), pp.216~220을 참조.

하였다. 방법론적인 문제에 국한시켜 볼 때 Schutz는 인간행위와 사회세계에 대한 이해가 해석적이어야 한다는데 Weber와 일치하지만, Weber의 이해(*Verstehen*), 의미(meaning), 행위(action)와 행동(behavior) 등의 개념이 너무 부정확하게 논의되고 있다고 비판한다.<sup>14)</sup>

Schutz는 사회과학의 기본 대상을 각 개인이 그의 동료와 당연시하게 공유하는 일상생활의 세계 또는 상식세계로 본다. 이 당연시되는 일상생활에의 접근은 자연적 입장자세를 점점함으로써 가능한데, Schutz의 이러한 입장은 일상생활의 여러 정형화(typification)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그것의 기본적 구조의 원리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sup>15)</sup>

Schutz의 상식적 세계(commonsense world) 또는 일상생활의 세계는 Husserl이 자연적 태도(natural attitude)라고 부르는 세계와 흡사한 것으로서 인간이 경험하는 상호주관적 세계의 여러 다른 표현들이다. 이 세계는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의 과거와 현재 및 미래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 우리에게 조직된 형태로 주어진다. 그러므로 그것은 우리가 상식적 세계안에서 행위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 행위하는, 사회적 행위의 무대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당연시되며 이러한 사실은 일상생활의 구조들이 상식에 의해 명백히 인식·평가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오히려 상식은 묵시적인 정형화를 통해 세계를 보고 세계 안에서 행위하며 세계를 해석한다. 사회적 세계의 존재, 동료의 존재, 의미있는 의사전달, 일상생활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원칙 등이 자연적 태도 또는 상식적 세계의 틀 속에 얽혀 있다.<sup>16)</sup>

이러한 현상학적 세계관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상식적 세계의 형성기초를 존재론 및 인식론의 측면과 관련하여 점점할 필요가 있다.

모든 사회적 행위는 상식적 세계안에서 이루어지고 각 개인은 자신의 위치를 그의 전기적 상황(biographical situation)에 비추어 알게 된다. 상식적 현실은 보편적 타당성을 갖는 역사적·문화적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지나 이 유형들이 한 개인의 생활에서 해석되는 각각의 방식은 그의 구체적 실존의 과정(전기적으로 결정된 상황)에서 구축된 경험에 따라 상이하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의 생활을 둘러싸고 있는 조건중에서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전기적 상황내에서 특정 관련요소들을 수반하였을 때 이 세계는 자신의 세계로 전환된다. 축적된 경험의 침전된 구조(sedimented structure of the individual's experience)는 행위자에게 독특한 것으로 주관적으로 그에게만 주어진다.<sup>17)</sup>

전기적 상황을 갖는 개인들은 어떠한 순간에도 항상 가용한 재고적 지식(stock knowledge at hand)을 가지고 있다. 이 재고적 지식은 상식적 세계의 정형화로 이루어져 있어서 사람들이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에서 유효적절하게 행위하고 대상을 해석할 수 있는 준거들이 된다. 개

14) Schutz의 사회학방법론은 Weber의 방법론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Alfred Schutz, *The Phenomenology of the Social World*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1967), pp. 3~44를 참조.

15) Maurice Natanson, "Introduction", in Alfred Schutz, *Collected Papers I: The Problem of Social Reality* (The Hague: Martinus Nijhoff, 1962), p. XXV.

16) *Ibid.*, p. XXVI.

17) *Ibid.*, pp. XXVI~XXVII; Alfred Schutz(1962), *op. cit.*, p. 55.

인화된 표현은 세계안에서 개인이 점하고 있는 독특한 위치에 따라 다르지만 축적된 지식을 이루는 정형화는 사회구조에서 생성되어 나온다. 왜냐하면 지식은 사회에 뿌리를 두고 사회적으로 배분되며 또 사회적으로 제공된 것이기 때문이다.<sup>18)</sup>

그런데 사회세계에서의 우리의 존재의 일차적 기반은 주관적인 공간과 시간속에 토대를 두고 있다. 전기적 상황과 재고적 지식의 경우에서 처럼 개인의 세계에 대한 정의는 그의 독특하게 구조화된 주관성으로부터 나온다. 개인은 그 자신의 시각에 의해 그의 세계를 정의하기도 하지만 상호 주관적 실재(intersubjective reality)내에 토대를 두고 있는 사회적 존재이다. 우리가 태어난 일상생활의 세계는 처음부터 상호주관적 세계이기 때문에 이 상호주관성의 철학적 문제가 결국 사회적 실재의 이해를 위한 실마리가 된다.<sup>19)</sup>

상호주관성은 우리의 세계의 자명한 성질로서 당연시 되는데, Schutz는 상식적 세계의 정형화를 서술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상호주관의 성격에 접근하고 있다. 이 문제는 실재가 공유되는 바를 검토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비록 내가 타인의 '여기'(here)라는 입장에 직접 설 수는 없을지라도 상상적으로 그의 입장을 취할 수는 있게되는데, Schutz는 이를 시각의 교환성(reciprocity of perspective)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시각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기'에서 느끼는 것과 똑같은 것을 '저기'(there)에서 지각할 수 있기 때문에 실재에 대한 공유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때 공간적 좌표와 더불어 나의 '지금'(now)에 기반을 두는 시간적 존재가 있어 문제가 더욱 복잡해진다. 나의 외부 세계에 대한 경험의 요소중에는 물리적 대상뿐만 아니라 타아(他我)도 포함된다. 자아에 대한 의식은 과거시제로만 경험되지만 타인에 대한 지식은 현재안에서 가능하므로 그를 '지금'으로서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바로 이 타인과의 경험의 동시성이 상호주관성의 핵심을 이룬다. 타인이 나에 대한 상호적 이해와 함께 이 동시성내에서의 타인에 대한 이해가 사회세계에서 우리들의 존재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다.<sup>20)</sup> 모든 사회적 관계와 마찬가지로 선임자(predecessors), 동시대인(contemporaries), 동공간인(consociates) 및 후임자(successors)는 다양한 방식으로 상식적 생활의 정형화를 통해 위치가 규정되고 해석된다(물론 사회관계의 대부분은 동시대인과 동공간인사이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상호주관성으로 실재가 공유된다면 사회적 행위는 어떻게 일어나고 또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점이 Schutz의 현상학적 방법론의 이해의 단서이다.

Schutz는 행위(action)와 행동(act)를 구별한다.<sup>21)</sup> 전자는 행위자에 의해 자의식적으로 투사된 인간의 행동(conduct)으로, 후자는 성취된 행위로 정의된다. 행위는 드러난 행위(overt action)와 숨

18) Maurice Natanson, *op.cit.*, pp. XXVIII~XXIX ; 이러한 관계는 Schutz의 지식사회학의 내용을 이루는 것인데 Berger와 Luckmann이 이를 계승·발전시키고 있다. Peter Berger and Thomas Luckmann, *The Social Construction of Reality* (New York: Doubleday and Co., 1966).

19) Alfred Schutz(1962), *op.cit.*, p.77; Maurice Natanson, *op.cit.*, p. XXX.

20) Alfred Schutz(1962), *op.cit.*, pp.173~174. Maurice Natanson, *op.cit.*, pp. XXXI~XXXIII.

21) Alfred Schutz(1962), *op.cit.*, pp.19~20; Alfred Schutz (1967), *op.cit.*, pp. 53~69; Maurice Natanson, *op.cit.*, p. XXIV.

겨진 행위(covert action)로 구분되는데, 전자가 투사되고 목적적인 것이라면 후자는 행위자가 어떤 숨겨진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선택하는 모든 종류의 부정적 결정을 포괄한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행위의 결정적인 특성은 그것이 고의적이고 투사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점일 것이다.

Schutz에 의하면 해석적 이해와 마찬가지로 의미의 주관적 해석은 세가지 상이한 관련 쟁점, 즉 ① 인간사(人間事)에 대한 상식적 지식으로서의 이해, ② 인식론적 문제로서의 이해, ③ 사회과학에 특수한 방법으로서의 이해 등 세가지를 포함한다.<sup>22)</sup> 이 중에서 인식론적 문제로서의 이해와 사회과학에 특수한 방법으로서의 이해에 기반이 되는 것은 개인들이 자신들의 구체적인 실존 속에서 체험하는 풍부한 상식적 경험전체를 포함하는 생활세계이다.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대상의 차이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자연과학적 방법에 이해 탐구되는 대상들은 일차 구성물(first-order constructs)로, 이는 아무리 복잡한 경우라도 관찰자가 자신의 세계내에서 직접 목도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사회과학자의 대상들은 그의 관찰을 위한 대상일 뿐만 아니라 대상들 자신이 미리 해석된 세계를 가지고 있고 스스로도 관찰을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자연과학의 그것과 질적으로 다르다. Schutz에 의하면 이러한 대상들은 이차적 구성물(second-order constructs)이 되어 인간의 주관적 실재를 충분히 알기 위해서 사회과학에서 이해(*Verstehen*)의 방법이 요구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연유에서이다. 그러므로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상이한 대상에 동일한 방법론적 인식과 도구를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Schutz의 방법론의 일관된 주장이다.

Schutz에 있어서 사회과학탐구방법의 목표는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경험하는 상호주관적 세계인 사회적 실재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구축하는 것이다. 현상학적 접근은 일상세계의 기본 구조, 의미, 관계 등을 해명함으로써 사회과학의 목표에 다가가고자 한다.

Schutz가 인간행위를 규명하기 위해 제시하는 과학적 모형의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sup>23)</sup>

먼저 사회과학자는 인간의 행위로 구성되는 사회세계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관찰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관찰을 기초로 전형적인 행위와 행위 경과의 유형(course of action pattern)을 확립하고 이 전형적인 행위에 가상적인 이념형적 행위자의 동기를 귀속시켜 조정한다.<sup>24)</sup> 이렇게 하여 의식이 부여된 행위자의 모형이 구성되고 이를 다른 비슷한 방식과 절차로 구성된 이념형적 모형과 연결시켜 전형적인 상호작용을 일으키도록 한다. 즉 사회과학자는 일상적 사회세계의 모형을 만들어 놓고 가상적 행위자에게 동기, 목표, 역할 등을 배정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사회과학자는 가상적 행위자들이 특정 조건 아래에서 어떻게 행위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설정된 사회과학자의 모형이 객관적으로 검증가능하고 사회세계의 상식적 구성물과 일치되

22) Alfred Schutz(1962), *op. cit.*, pp.56~58; Maurice Natanson, *op. cit.*, pp. XXXIV~XXXV

23) Alfred Schutz, *Collected Papers II : Studies in Phenomenological Philosophy* (The Hague: Martinus Nijhoff, 1964), pp.16~18.

24) Schutz는 동기를 '때문에 동기'(because motives)와 '위하여 동기'(in-order-to motives)로 구분한다. 전자는 과거시제에 의해 지배되고 객관적 범주를 형성하는 반면 후자는 미래시제에 의해 지배되고 주관적 범주를 형성한다. 자연과학적 방법은 주로 전자를, 사회과학적 방법은 후자를 다룬다. Alfred Schutz(1962), *op. cit.*, pp.21~22; Alfred Schutz(1967), *op. cit.*, pp.86~96.

기 위해서는, 즉 사회적 행위의 주관적 의미를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논리적 일관성(logical consistency)과 적합성(adequacy)이 보장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sup>25)</sup>

다시 말해서 인간행위의 과학적 모형은 일상생활의 경험속에서 꿈틀거리는 사람들의 행위를 해석적으로 이해해야 실증주의 방법론이 갖는, 현실로부터의 지나친 추상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상학적 관점에서 보면 사회과학자에 의한 사회실재의 해석이 행위자에 의한 해석과 동떨어져서는 안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 3. 민속방법론

민속방법론의 창시자이며 핵심적인 사회학자인 Harold Garfinkel은 상식적 세계가 어떻게 해석 가능한가 하는 문제에 대해 탁월한 통찰을 보여 주었던 Schutz의 현상학과 상징적 상호작용론 그리고 T. Parsons의 사회행위론으로부터 학문적 영향을 많이 받았다.<sup>26)</sup> 여기서는 Garfinkel을 중심으로 민속방법론의 성격을 검토할 것이다.

민속방법론은 기존 사회학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실증주의적 전통에 대한 철저한 비판에서 출발하고 있다. 실증주의 사회학방법론이 사회구조에 대한 사람들의 상식적 지식을 연구의 자원으로 사용하는데 비해 민속방법론은 상식적 지식을 연구의 주제(topic)로 삼는다. 그렇기 때문에 민속방법론이 던지는 도전적인 질문들은 사회학자들이 발전시켜야 하는 것이 미시적 과정에 대한 이론인가 기시적 과정에 대한 이론인가, 사회를 규범, 행위, 상징적 상호작용 등의 어느 것에 근거하여 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식의 문제에 관한 것은 아니다. 적어도 이러한 문제들은 실증주의 사회학방법론에 도전하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분석이나 현상학적 접근에서 종결된 것으로 본다. 민속방법론에 있어서 보다 중요한 문제는 사람들이 외재적인 사회적 실재에 대한 지식과 감각을 의식적·무의식적으로 구성해내고 유지·변화시켜 나가는 복잡한 방법들에 관한 것이다. 즉 사회학자나 일상인들이 사회가 실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가정을 상호간에 어떻게 만들어 가고 유지하며 변경시켜 나가느냐 하는 문제에 관련된 것들이다. 실제로 사회를 유지시켜 주는 것은 규범·가치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사회질서의 가정을 세우는 명시적·묵시적 방법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sup>27)</sup>

민속방법론은 관찰과 방법의 신뢰도와 타당도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사람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해명가능한(accountable) 활동을 창출하기 위해 적용하는 공통적인 방법의 기술에 더 많은 관심을 둔다.<sup>28)</sup> 민속방법론은 그 어원이 암시하고 있듯이 사람들(ethno-)이 일상적인 생활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방법(method-)에 관한 연구(-ology)인 것이다. 따라서 민속방법론은 사회이론

25) Alfred Schutz(1962), *op.cit.*, pp.42~44.

26) Garfinkel이 어떠한 영향을 받아 민속방법론을 전개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Mary F. Rogers, *Sociology, Ethnomethodology and Experience: A Phenomenological Critiqu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3), pp.80~84를 참조할 것.

27) Jonathan H. Turner, *op.cit.*, pp.404~405.

28) Harold Garfinkel, *Studies in Ethnomethodology* (New Jersey: Prentice-Hall, 1967), pp.VII~VIII.

적인 성격을 갖으면서 그 자체가 방법론인 것이다.

Garfinkel에 의하면 민속방법론자들은 경험적 연구의 주제로 실제적 활동, 실제적 환경 및 실제적인 사회학적 추론에 관심을 지향시키기 때문에 과정의 방법적 성격을 매우 강조한다.<sup>29)</sup> 이들에 있어서 사회학은 일상생활에 대한 연구이고 사회학 자체가 일상생활의 활동인 까닭에 어떤 의미에서는 일상인 모두가 사회학자인 것이다.<sup>30)</sup> 그러므로 일상생활의 일반적 과정들, 즉 상식적 상황에서의 의사결정과 실재유지 활동이 중요하게 인식된다. 이러한 과정에 대한 상식적(mundane) 지식과 언어는 중요한 관심대상이 된다.

그러면 민속방법론에 있어서의 사회적 실재는 무엇인가?

민속방법론자들은 상식적 세계의 행위자들이 사회적 실재의 상호주관적 성격을 창조한다고 보기 때문에, 사회적 실재는 사회를 사실로서 경험·묘사하는 활동과 해석과정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사회적 실재의 성격은 우리의 당연시된 상식적 세계가 최고의 실재(paramount reality)를 갖는다는 Schutz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실재는 존재론적으로 실재론을 주장하는 학자(예컨대, E. Durkheim)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저기 어딘가에 있는 고정적 실재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 의해 재해석·재규정될 수 있는 실재로서 파악된다. 그렇기 때문에 민속방법론자들은 사회적 실재에 대한 전통적인 실증주의 사회학방법론의 가정을 가차없이 폐기하여 버린다. 전통적인 사회학적 준거들은 의미의 세계를 사회적 상호작용과는 독립적이고 외재적인 것으로 가정함으로써 인간과 사회를 물상화(reification)하는 인식 모순을 갖게 된다고 비판한다. 인간을 적극적으로 사회세계를 관리·창조·변경시켜 나갈 수 있는 능동적 존재가 아니라 규범적 유형에 의존하는, 사회문화적 꼭두각시에 불과한 존재로 간주해 버렸다는 것이다.<sup>31)</sup>

이러한 실증주의 방법론의 대상불변성의 가정(object-constancy assumption)은 민속방법론자들에게 의해 과정에 대한 개념으로 대체된다. 즉 사회적 실재는 객관적으로 이미 주어진 존재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창조·유지·변화되는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sup>32)</sup> 이 같은 사회적 실재에 대한 존재론적·인식론적 전제에 근거하여 민속방법론자들은 일상인들이 현실의 공유된 사회세계에 대한 가정을 어떻게 창조·유지해 나가는가를 보여줌으로써 사회적 실재를 이해가능하게 하고자 한다.

Garfinkel은 일상생활에서 쓰여지는 언어, 즉 자연적 언어(natural language)에 대한 분석을 통해 언어적 표현의 의미는 성찰성(reflexivity)과 지표성(indexicality)에 의거하여 이해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sup>33)</sup>

성찰성은 실질적 활동과 공유된 상황의 성취(accomplishment)와 밀접히 관련되는 개념으로 이는

29) *Ibid.*, p. 1.

30) *Ibid.*, p. 2.

31) *Ibid.*, pp. 66~67.

32) Mary F. Rogers, *op. cit.*, pp. 87~88.

33) Harold Garfinkel and Harvey Sacks, "On Formal Structures of Practical Action", in J. C. McKinney and E. A. Tiryakian, (eds.), *Theoretical Sociology* (New York : Appleton-Century-Crofts, 1970), pp. 337~366.

사회상황을 동시에 기술하고 구성하는 관행(practices)을 나타내는 것이다. 일상세계의 성원들은 동시에 그리고 동일한 절차에 의해 하나의 상황을 관찰가능한 실재로 구성해 낸다. Garfinkel에 있어서 성찰성의 개념은 '상황정의'의 또다른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상황은 그 참여자들에게 자원과 주제로 작용하기 때문에 규정은 곧 상황인 것이다. 따라서 성찰성은 일상생활의 성원들의 상황처리활동이 그 상황을 해명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절차와 동일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개념이다.<sup>34)</sup>

성찰성이 행하고 상호작용하며 말하는 행위의 동시성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지표성은 그 동시성의 맥락적 의미, 즉 의미의 맥락결정성을 나타내는 것이다.<sup>35)</sup> 행위자들은 구체적인 사회적 상황내에서 의미를 만들어내는데 그 의미는 특정 상황내에서의 상호작용으로부터 나온다. 그런만큼 상호작용당사자들이 그 맥락에 대한 어떤 지식없이 상호작용하는 개인들간의 상징적 의사소통을 잘못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 예전대 일상생활에서 자연적 언어의 사용은 단순한 상호작용을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사용되는 특정 상황과 유의미한 관련성을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일상적 사회실재의 이해를 위한 민속방법론의 개념과 실증주의 방법론에 대한 비판은 독특한 탐구논리를 함축하고 있어 사용되는 방법도 전통적인 사회학적 방법과 매우 상이하다.<sup>36)</sup> Garfinkel은 증거적 해석방법(documentary method of interpretation)을 제시한다. 일상인의 사회학적 탐구와 전문적인 사회학적 탐구 모두 지표적 표현(indexical expression)의 의미파악의 한 전략으로 이 방법을 사용한다. 이 방법은 사건의 실제 외양이 공통된 상황적 기대를 근거로 하여 미리 가정된 기본 유형(underlying pattern)의 증거로서 처리되는 것을 말한다. 이 때 기본 유형은 개별적 증거로부터 파생되며 이 개별적 증거는 다시 기본 유형에 대해 알려져 있는 지식을 기초로 하여 해석된다. 따라서 각각은 다른 것을 정교화시키는데 사용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다.<sup>37)</sup>

민속방법론자들의 사회적 실재의 분석목적은 변수간의 관련성을 인과모형에 따라 설명하려는 데 있지 않고 단순히 사회실재가 형성되는 과정을 기술하려는 데 두어진다. 관찰결과로 추상화된 일반명제나 이론을 구성하려는 시도는 이들의 현실적 목적이 아니다. 그들에게 하나의 사례에 대한 하나의 해명(account)이면 족하다. 따라서 그들은 구체적인 방법으로 직접 참여하여 관찰할 것을 요구한다. 해명이나 기술은 성원들의 실제 상황에 부착된 의미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적절한 해명을 위해서는 그 상황에 직접 들어가 관찰하는 것이 최상이라는 것이다. 한 예로 Garfinkel은 말꼬리잡기실험(breaching experiment)을 통해 사회적 실재의 형성과 유지, 상황적 질서의 성찰적 성취 및 여백원리(et cetera principle)의 사용 등의 과정을 드러내고 일상적 활동에 사용되는 실재 규정의 방법을 발견코자 한다.<sup>38)</sup>

34) Mary Rogers, *op.cit.*, pp.93~94.

35) *Ibid.*, p. 94.

36) *Ibid.*, pp.100~101.

37) Harold Garfinkel, *op.cit.*, p.78; *Ibid.*, p.101.

38) Harold Garfinkel, *op.cit.*, pp.42~44.

이처럼 민속방법론의 목표는 여러 방법들을 다양한 사회상황에 적용함으로써 사회적 실재 또는 사회질서가 사회성원 상호간에 생성·유지·변경되는 과정과 방법을 밝혀내고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IV. 맺 음 말

우리는 지금까지 반실증주의 사회학방법론이라 할 수 있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분석, 현상학적 접근 및 민속방법론의 성격을 간략히 살펴 보았다. 이들의 특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들 방법론들간에 여하한 차이점이 존재하는가를 드러내 보였지만 결론적으로 이점을 분명히 하여 보자.

우선 세 방법론 모두 반실증주의 사회학방법론 또는 해석적 사회학방법론속에 위치지을 수가 있다. 모두가 관계적 사회학, 즉 존재론에서는 실재론을, 인식론에서는 실증주의를,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는 결정론을, 그리고 방법적 지향에서는 법칙정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실증주의 사회학 방법론에 도전하는 명목론적, 반실증주의, 자원론적 그리고 개별기술적 입장을 취하는 패러다임들이다.

그러면서도 이들 방법론들이 추구하는 전략적 목표들은 서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분석에서는 인간이 단순히 자극수용체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세계의 창조적 해석자이면서 능동적으로 구성·변화시키는 존재로 그려진다. 그러나 이러한 측면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역으로 사회가 개인을 어떻게 제약하고 모양지우는가를 도외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sup>39)</sup> 방법적 전략에 있어서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분석이 관계적 실증주의사회학에 대한 비판을 당시로서는 통렬하게 전개하고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기존 방법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완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 즉 존재론, 인식론 및 인간의 본성에 있어서는 기존 사회학과 완전히 대립되는 위치에 있지만 방법에서는 그 비판적 대안의 인식수준이 여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Blumer가 방법론적 전략으로 제시한 탐색과 정밀검사는 관찰적이고 전기적인, 그리고 비구조화된 면접의 효용성을 강조하는 것임에는 분명하지만 이들은 구조화된 질문서방법을 주요 방법으로 취하는 실증주의 사회학방법론을 보완하고자 것이라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현상학적 접근이나 민속방법론에서는 이론적 인식수준이나 방법 모두에서 실증주의 사회학방법론의 입장과 완전히 상이하다. 특히 인간과 사회적 실재간의 역동적 과정에 대한 설명은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분석보다 훨씬 세련되고 정교하다. 현상학적 접근과 민속방법론은 참여 관찰과 같은 비구조적이고 융통성있는 방법적 전략을 강조한다. 더우기 이론적 인식을 현상학적 접근에 기대고 있는 민속방법론의 경우 하나의 표본에 대한 하나의 해명이면 족한 것으로 본다.

39) 이점은 Blumer가 주체와 객체, 인간과 사회의 이원론적 입장을 거부하는 그의 스승 H. Mead의 변증법적 입장을 수정했거나 잘못 이해한데서 연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속하면서도 실증주의 방법론에 보다 가까운 M. Kuhn을 중심으로 한 Iowa학파가 인간에 대한 사회의 영향을 더 고려한다. Chicago와 Iowa학파간의 방법론적 차이점에 대해서는 Jonathan H. Turner, *op.cit.*, pp. 326~346의 논의가 유익하다.

세 방법론이 추구하는 과학적 목표도 각기 상이함을 발견할 수 있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분석이나 현상학적 접근은 각기 실증주의 사회학방법론과 다른 방법을 강조하기는 하지만 이론구성을 통해 일반적 지식을 추구하고자 하는데 비해, 민속방법론(Garfinkel에 한정해서 보면)은 관계의 설명을 통한 일반화의 모색보다는 사람들이 사회적 실재를 창조·유지·변경시키는 방법들을 기술하고 해명하는데 만족하고자 한다. 이점에서 민속방법론이 두 방법론보다 반실증주의 사회학 방법론의 패러다임을 철저히 고수하고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반실증주의 사회학방법론은 미시적인 사회현상에 초점을 두는 방법론임에는 틀림없다. 사회학이 궁극적으로 인간의 사회적 해위를 해석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분석보다는 오히려 현상학적 접근이나 민속방법론이 더 방법론으로서의 설득력을 가지고 발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회적 실재에 대한 이들의 존재론적·인식론적 지향은 지식사회학의 주요한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유용한 지침을 제공해 줄 것이다. 그러나 사회학이 해야 할 일은 인간의 사회적 행위의 미시적 과정에 대한 분석에 치중하는 것 못지 않게 사회구조의 거시적 문제에 중점을 두는 일이다. 거시적 구조가 인간의 사회적 행위에 작용하는 제력(forces)에 대한 분석이 현재로서는 더 치중해야 할 작업이 아닌가 한다.

실증주의 사회학방법론에 대한 반실증주의 사회학방법론의 대체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실증주의 사회학방법론이 사회학의 공동체내에서 행사하는 영향력의 범위와 주도적 위치에서 우월성에 대한 촌부의 양보도 하려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완전히 대체되리라 확신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쟁적 패러다임으로서 반실증주의 사회학방법론이 보다 안정적인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거시적 사회현상의 이해를 위한 적절한 방법과 기법의 개발은 물론 검증가능한 이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경험적 연구를 축적해야 할 것이다.

## Summary

# On the Anti-Positivistic Methodology in Sociology

*Kim Jin-young*

This article is to explore the meaning of the social reality and the nature of the anti-positivistic methodology in sociology, based on philosophical assumptions about social science.

First, we think that different philosophical assumptions will be likely to incline sociologists toward different methodologies. I, therefore,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methodological paradigms and philosophical assumptions related to ontology, epistemology and models of human nature.

Second, we can classify the typical type of the anti-positivistic methodology in sociology into symbolic interactional analysis, phenomenological approach and ethnomethodology. We discuss the nature of the social reality and methods within these methodologies.

H. Blumer, a symbolic interactionist of Chicago tradition, disagrees with some positivistic assumptions by criticizing the problems involved in employing structured measuring instruments to understand fluid social reality based on symbolic process.

Phenomenological approach takes the symbolic interactionist's concern one step further. Phenomenologist's social reality is the underlying typification of common sense which makes intersubjectivity possible. The objects investigated by sociologists are second-order constructs and the method of *Verstehen* is the employed in order to comprehend this full subjective reality.

Ethnomethodological concerns have to do with how actors use methods or procedures to create and sustain or even change a sense of external social reality. Ethnomethodologists employ key concepts such as reflexivity and indexicality by direct participant observation.

The anti-positivistic methodology, if it is to have stable methodological status, will need to move toward developing useful methods and doing empirical researches that can generate testable theory.